



# 싱싱한 채소로 풀어낸 상큼한 전시

### 'Grocery farm-up store' 전 당근 등 소재로 '요즘 생각' 담아 15일까지...청년작가 굿즈 판매

전시장에 들어서면 식료품 가게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냉장고와 바구니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등 알록달록 과일과 채소(모형)들이 가득하다. 바닥에는 인조 잔디를 깔아 마치 채소가 자라는 농장에 놀러온 느낌도 갖게 된다.

(주)라운드 크랙의 전시 'Grocery farm-up store'전은 젊은이들의 특색 튀는 감성이 돋보이는 기획전이다.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커피빈' 3층 빈 점포를 임대해 열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감하는 키워드와 채소가 갖고 있는 효능, 싱그러움을 결합해 재미난 전시로 구현해냈다.

이번 기획전은 전시 공간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상큼한 기운을 받는다. 색깔을 테마로 꾸며진 공간은 흥미롭고, 각각의 테마에 맞는 작품들을 배치해 즐거움을 더한다. 또 바스켓에 고민을 적은 볼풀 던져넣기, '대인관계 체크리스트', '우정고사 문제지' 등 재미있는 설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시 공간은 채소의 색깔로 구분했다. 붉은 색

의 '토마토' 존은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전시물은 가게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에 담겨 있다. 보라색 가지는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파프리카는 '건강한 가치관'을 주제로 전시를 구상했다. 또 푸른색 블루베리는 몸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젊어지는 '노화 예방', 초록색 블루베리는 '강한 심장'이 주제다. 전시 공간에는 각각의 테마와 관련된 전시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붉은색 모형 전화는 '인맥'을 상징하고, 다양한 색깔의 '젠가'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균형을 이루며 아우러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뜨는 '스쿱'은 동글동글 살아가지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아이티이다. 블루베리 존의 '심장'은 도전, 지구력과 연계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도전에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구력이고, 이런 내용을 풀어내는 전시품으로는 올림픽 선수들의 '한마디'를 적어놓은 카드를 배치, 관람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배구 선수 김연경),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다.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탁구 선수 리안) 등이다. 지역 청년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100일 챌린지 노트'는 이런 도전에 함께 하면 좋은 아이티이다.

광주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색다른 전시를 꾸리게 된 건 코로나 19가 영향을 미쳤다.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전시로 풀어보자는 기획했다. 단 기존의 딱딱한 전시 형태 대신 '팝업스토어' 형식의 '재미있는 전시'를 꾸려보자는 생각했고, 채소가 갖고 있는 다채로운 색깔에서 힌트를 얻었다.

전시장에서는 청년작가들과 협업한 굿즈들도 판매된다. 키홀더, 에어팟 케이스, 엽서, 챌린지 노트 등이다. 커피빈 1층에 전시 안내자가 대기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 오후 3시~밤 9시(입장 마감 8시)까지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Grocery farm-up store'전은 당근 등 채소를 소재로 '요즘 생각'을 담아낸 유쾌한 전시다.



## 음악으로 그리는 일곱가지 반 고흐

### 10일 강진아트홀, 카이 출연

뮤지컬 스타카이가 강진에 온다.

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음악으로 그리는 일곱가지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공연이 오는 10일 오후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뮤지컬 가수 카이

공연은 빈센트 반 고흐가 작품을 통해 전하려 했던 삶의 의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음악과 미술, 미디어아트, 인문학을 결합한 융복합 공연으로 제작해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에게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무대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 '밤의 테라스' 등 고흐의 명작을 미디어아트로 재현해 꾸며진다. 아울러 뮤지컬 가수 카이를 비롯해 김순영·박시원·이희주 등이 '로미오와 줄리엣', '시네마천국', '넬라판타지아', '안단테 칸타빌레', '격정말야요 그대', '가을 편지'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을 들려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비를 후원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으로 무료 초대권(1인 2매)은 8일부터 강진아트홀 매표소에서 배부한다. 문의 061-430-397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박인순 작가와의 동행

### 4일 광주사직공원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광주 독서문화원은 오는 4일 광주사직공원 중앙 배드민턴장에서 '사직공원을 가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장편 소설 '그 남자의 침묵에 신의 눈물'을 펴낸 박인순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동행' 등이 펼쳐진다. 또한 문학을 주제로 한 기념 축하 공연과 사직공원 일대에 있는 시비에 대한 해설 등도 있을 예정이다.

박 작가의 작품 '그 남자의 침묵에 신의 눈물'은 한 인간으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남편과 아버지로 30년을 후회없이 사랑과 책임을 바치고 '남은 여생은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떠나는 중년 남성을 그렸다. 존엄과 행복, 이해와 배려, 진실과 같은 목직한 주제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문의 010-4497-1187, 010-2680-0617. /박성현 기자 skypark@

## '색한지가 가을을 부른다'

### 우제길 화백 기획전, 10월4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오방색, 한지의 매력에 빠져 보세요.'

크고 작은 다채로운 한지가 겹쳐지고,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화면은 오묘하다. 다양한 색들이 자연스레 서로 스며들며 슬한 표정을 만들어내고, 마치 수묵화의 은은한 번짐처럼 편안한 기운을 전한다.

선배 작가의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온 우제길 화백이 10여년전부터 진행해온 한지 작품으로 미술 애호가들을 만난다. 무등산 자락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10월4일까지 '색한지가

가을을 부른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에는 오방색의 색면추상 15점이 나왔다. 한지는 우 화백의 마음을 오래전부터 사로잡았다. 한지가 말로 장인정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한지가 전해주는 느낌 자체가 '자연'을 연상시켜 마음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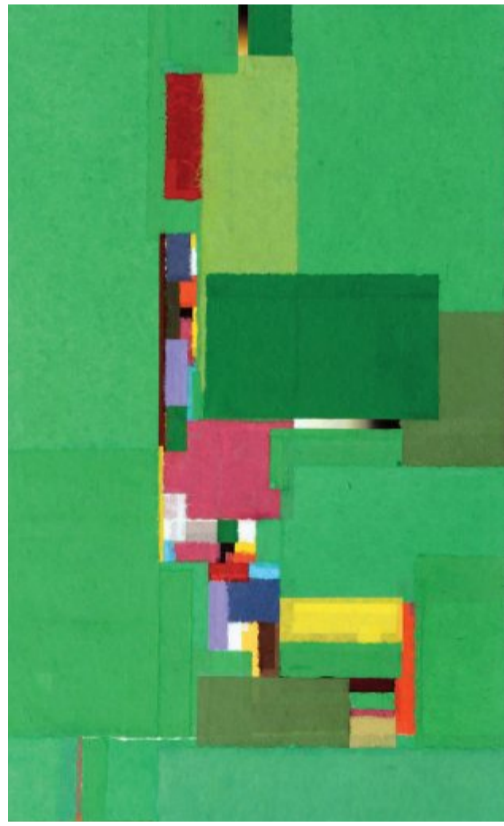
판넬 위에 하얀 배경을 한 후 한장 한장 붙여나간 한지는 칼, 가위 등 인위적 도구를 이용해 반듯하게 잘라낸 게 아니라 작가가 직접 물에 묻혀 손으로 잘라내 투박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눈에 띈다. 특히 다양한 색깔의 배치는 작품의 하이라이

트다. 아름다운 오방색 한지는 크기와 색깔의 배열이 어우러져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내며 부드러운 색감이 서로 자연스럽게 스미면서 한지의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우 화백은 초창기 한지 작업에서는 마감재를 칠했지만 최근에는 '종이가 차츰 변해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에 마감재를 칠하지 않고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또 각각의 작품에는 우 화백의 트레이드 마크인 '빛'의 이미지를 넣어 한지의 속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화면을 선보인다.

우 화백은 "전통 색한지의 독특한 물성에 매료돼 작품 제작과 전시를 해왔다"며 "오방색 색한지가 만들어내는 화면은 때론 의도치 않은 조형성으로도 발견돼 작품 제작하는 즐거움도 준다"고 말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Light2012, A-28'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남시다



###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